



연중 제14주일(7월 9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마태 11,25-30)



살바토르 문디 Salvator Mundi

살바토르 문디는 라틴어로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림 속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온 세상을 상징하는 크리스탈구를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을 들어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림 엘 그레코 | 1541-1614년, 캔버스 위 유화, 73x56.5cm, 스코티쉬 국립 미술관, 영국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99번 “예수 마음”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 마음 속에 머무르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마태오 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25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26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27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 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28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30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아버지,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마태 11,27)

나의 능력이나 재능, 내가 가진 힘을 통해서 하느님보다 나 자신을 더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마태 11,28)

오로지 하느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하느님을 열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열망하기를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향한 열망을 잠시 중단하고, 그 마음을 하느님에게로 돌릴 때에 하느님을 열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내가 몸과 마음을 쏟아붓고 있던 그 무언가를 잠시 중단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느님을 향해 나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안식의 시간을 거룩하게 축성하셨고, 그것을 당신의 백성에게 십계명 중 세 번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너희가 몸과 마음을 쏟아붓던 것을 잠시 중단하고 멈추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우리들의 삶은 끊임없이 나아가는 기차와도 같습니다. 하나의 흐름에 실려 어딘가를 향해 계속 나아가면서, 그것이 발전이고 성장이라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빠르게 나아가는 그 길에서는 끊임없이 더 앞에 있는 것을 만나기는 하

지만, 정작 어느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게 됩니다. 멈추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를 멈추는 것이 바로 쉼의 명에이고, 이 명에를 감당해야 만이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안식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 안식의 시간 안에서 하느님을 마주할 수 있고, 하느님께 지친 영혼을 치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99번 “예수 마음”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